

두터워진 불펜 뎀스...진화하는 '필승조'

KIA, 스프링캠프 3차례 연습경기...새 시즌기본을 윤곽

홍민규·김범수 등 새 얼굴 활약, 계투진 경쟁 본격화
선발진 실전 감각 조율 단계...타선은 백업 중심 실험
수비 조직 조율 중, '키플레이어' 데일 공백 변수 남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2차 스프링캠프가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KIA는 지난 2일 삼성전까지 세 차례 연습경기를 치르며 전력 점검에 집중했다.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포지션별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한 실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연습경기 기간 KIA는 선발진과 더불어 다양한 불펜 자원들을 폭넓게 기용하는 데 무게를 뒀다. 컨디션과 기록을 함께 고려해 상황별 역할을 가려내려는 의도가 뚜렷했다. 지난 시즌 KIA는 주요 계투진의 부진으로 경기 중반 이후 흔들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캠프에서 불펜 전력 강화에 신경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전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도 확인됐다. 1차전 WBC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홍민규와 이태양이 나란히 1이닝 무실

점을 기록했고, 2차전 한화전에선 김시훈, 이준영, 김기훈 등이 상대 타선을 실점 없이 무효화했다. 3차전 삼성전에서는 새로운 자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김범수가 1이닝 2탈삼진 무실점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9회 등판한 홍건희도 제구 난조 속에서도 삼진 두 개를 잡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지난해보다 유연하고 두터운 불펜진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선발진도 조금씩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분위기가. '에이스' 내일을 중심으로 양현종과 황동하, 김태형, 이의리 등이 실전 감각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선발진보다 불펜 쪽 완성도가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이다. 타선은 아직 완성 단계라기보다 백업 자원 확인 성격이 강했다. 경기마다 구성과 조합이 달랐던 만큼 결과도 일정하지 않았다. 1차전에서는 새 외국인 선수 카스트로의 장타



김범수

력이 눈에 띄었고, 2차전에서는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잦았다. 반면 3차전에서는 백업 자원들이 대거 기용됐음에도 집중력이 살아나며 15안타를 기록했다. 아직 경기별 편차는 있지만, 다양한 조합 속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수비 역시 아직은 조율 단계다. 큰 실책은 없었지만, 내야수 데일의 WBC 호



홍건희

주 대표팀 합류로 백업 자원들의 수비 호흡을 점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세 차례 연습경기를 돌아보면, KIA는 불펜에서 가능성과 안정감을 함께 확인한 점이 가장 큰 수확이다. 남은 연습경기에서 선수단은 계속해서 실험을 이어갈 계획이다. 선수들의 몸 상태는 아직 올라오는 구간이다.



김기훈

(KIA 타이거즈 제공)

코치진은 이미 시즌 초반 운용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오는 5일 KT, 6일 LG와의 캠프 마지막 연습경기는 백업 선수들의 기용 방향을 더 가다듬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 야구계 관계자는 "캠프 막판에는 결국 어디에 넣어도 버틸 수 있는 선수가 눈에 들어온다"며 "남은 연습경기에서 역할이 조금씩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오릭스戰 스리런'...김도영, 3경기 연속포

일본 오기나와 전지훈련에서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대비한 한국 야구대표팀은 뜨거워도 너무 뜨거웠던 타격감을 오히려 걱정했다. 대표팀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오기나와에서 KBO리그 구단과 5차례 연습경기를 치렀고, 4승1패로 좋은 성적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돋보인 것은 대표팀의 뜨거운 타격감이었다. 5경기 팀 타율은 0.361, 팀 OPS(출루율+장타율)는 1.008이었다. 일본 오사카에서 WBC 사무국이 마련한 두 차례 공식 평가전을 통해 최종 점검을 마치고 이제 결전지 도쿄로 향하는 대표팀은 3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오릭스 버펄로스전에서 여전히 뜨거운 타격감을 확인했다. 대표팀은 오릭스를 맞아 8-5로 승리하고 두 차례 평가전을 1승 1무로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에서 무엇보다 반가운 장면은 김도영(KIA 타이거즈)의 3경기 연속 홈런이었다. 김도영은 2-0으로 앞선 2회 오릭스 투수 가타야마 라이쿠를 맞아 3점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풀카운트에서 가타야마의 변화구 실수가 들어왔고, 그걸 놓칠 김도영이 아니었다. 김도영의 화려한 스윙에 걸린 타구는 교세라 돔 왼쪽 담장을 넘기기에 충분했다. 사실 김도영의 타격감은 오기나와 캠프 초반만 해도 좋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삼성 라이온즈와 연습경기에서 대형 파울 홈런으로 감을 잡은 뒤 우리가 알던

연습 5경기 팀타율 0.361...대표팀 '뜨거운 방망이' 도쿄돔 정조준



3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평가전 한국 대표팀과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경기. 2회초 2사 1, 3루 한국 김도영이 3점 홈런을 친 뒤 세례마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리그 최우수선수(MVP)와 같은 타격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날 오기나와 연습경기 첫 홈런을 친 김도영은 2일 한신 타이거즈전에 이어 이날까지 3경기 연속 홈런을 넘겼다. 두 차례 평가전에서 1번 타순을 지킨 김도영은 WBC 조별리그에서도 현대 야구 흐름에 맞

이제는 결전의 시간...내일 체코와 첫 경기 류지현 대표팀 감독 "도쿄 넘어가서 싸울 준비 됐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전지 일본 도쿄로 향한다. 류지현(사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일 열린 일본프로야구(NPB)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WBC 공식 평가전을 끝으로 도쿄에 입성한다. 4일 도쿄돔에서 공식 훈련과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5일 체코를 상대로 WBC C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2006년 초대 WBC 4강, 2009년 2회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2013년과 2017년, 2023년까

지 3회 연속 조별리그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소 8강 진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회를 준비한 대표팀은 오사카에서 2일 한신 타이거즈와 3-3으로 비겼고, 오릭스를 상대로 활발한 타격을 앞세워 8-5 승리를 따냈다. 류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아쉬운 점은 없다. 1월 사이판에서부터 준비해왔고, 오기나와를 거쳐 오사카에서 모든 준비를 끝냈다"면서 "이제 도쿄 넘어가면 싸워야 하고, 준비됐다고 생각한다. 도쿄에서 준비한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출사표를 올렸다.



이날 김도영(KIA 타이거즈)과 셰이 윌트킴(휴스턴 애스트로스), 안현민(Kt wiz) 등 본대회에서 중심 타선을 맡아줘야 할 선수들이 훈련 포를 가동해 승리에 앞장섰다. 또 데인 테닝(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 리그)이 3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다만 불펜 투수들이 흔들린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 류 감독은 "우리 투수들은 어제와 오늘 잘 확신했다. 잘 준비해서 5일부터 경기 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지난 2일 열린 이란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3-0 승리를 거뒀다. 골을 넣은 김혜리가 동료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최유리·김혜리·고유진 '골!골!골!'

신상우호, AFC 여자 아시안컵 1차전서 이란에 3-0 대승

'신상우호'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을 꺾고 대회 첫 우승과 함께 4회 연속 여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도전의 첫걸음을 가볍게 내디뎠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지난 2일 호주 퀸즐랜드 주 골드코스트의 골드코스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이란을 3-0으로 물리쳤다. 한국은 5일 같은 장소에서 필리핀과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1위인 한국은 68위인 이란을 전반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몰아쳤다. 이란의 두꺼운 수비벽을 공략하는 데 애를 먹은 한국은 마침내 전반 37분 16번째 슈팅에서 최유리의 첫 득점이 터졌다. 한국은 후반 교체로 투입된 이은영이 후반 13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상대 수비수에게 발이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키커로 나선 김혜리가 추가골을 만들면서 스코어를 2-0으로 벌렸다. 한국의 세 번째 득점은 후반 30분 '캡틴' 고유진의 머리에서 나왔다.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김혜리가 투입한 프리킥을 공격에 가담한 중앙 수비수 고유진이 골 지역 정면에서 반칙 솟아올라 헤더로 쉐기 골을 꽂았다. /연합뉴스

이세돌, 10년 만에 AI와 다시 선다

인한스 에이전틱 AI와 글로벌 캠페인

에이전틱 AI 스타트업 인한스는 오는 9월 이세돌 9단과 AI 글로벌 캠페인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10년이 시점에서 당시 대국이 열렸던 곳과 동일한 포시즌스 호텔 아라홀에서 진행된다. 인한스는 인간의 의도와 데이터의 관계를 이해하는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에이전틱 AI의 상용화를 알리는 기술적 전환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세돌 9단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인한스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즉석에서 '미래의 바둑'을 구상하고, 바둑 모델을 실시간 채구성해 대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엔트론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 /연합뉴스



인한스 이세돌 (인한스 제공)